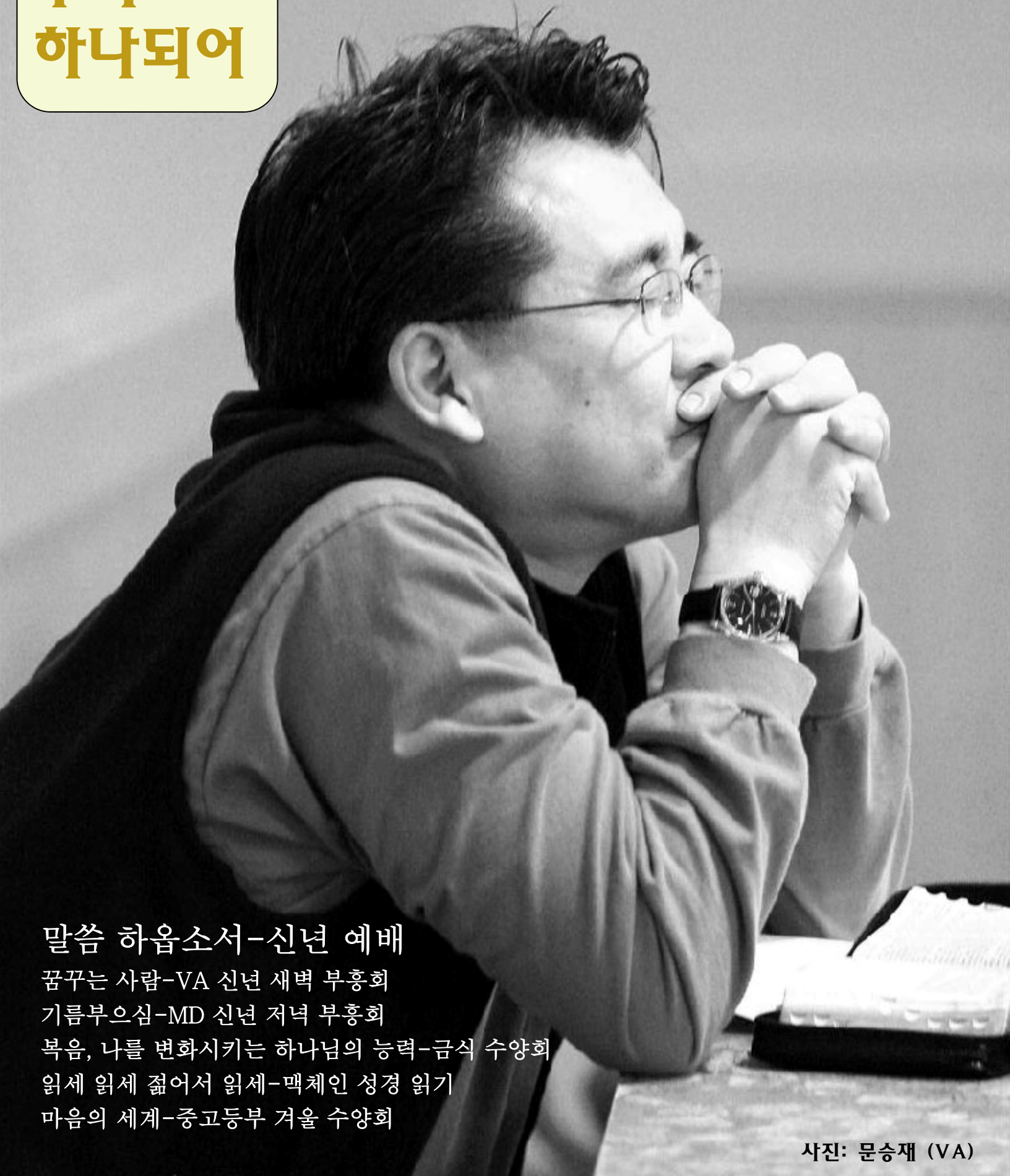


헬로십교회

우리 하나되어



말씀 하옵소서-신년 예배
꿈꾸는 사람-VA 신년 새벽 부흥회
기름부으심-MD 신년 저녁 부흥회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금식 수양회
읽세 읽세 젊어서 읽세-맥체인 성경 읽기
마음의 세계-중고등부 겨울 수양회

사진: 문승재 (VA)



헬로쉽교회 건물관리부





헬로쉽 한국학교

민속놀이



(MD 캠퍼스, 2007년 12월 30일)

제 59차 새가족반



(위줄 왼쪽부터) 조윤희, 백근필, 홍춘식, 나성주, 최종태, 조균휘, 임동식, 유종우, 유정현
(가운데줄 왼쪽부터) 홍지연, 유정순, 조미영, 장경희, 신빛나, 신성재, 이효이, 이종석, 김성광, 이형기, 김호경
(아래줄 왼쪽부터) 권석남, 임금화, 김순례, 김혜정 사모, 김원기 목사, 오진희, 박지영, 백혜란

헬로쉽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유종우

저희 가정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우 만족하면서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뉴저지에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늘 즐겨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유목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안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메릴랜드에 우리 가정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선지 제 직장을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변 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 무려 9곳의 교회를 소개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메릴랜드에 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연찮게 헬로쉽교회에 오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헬로쉽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고, 제 마음 속엔 많은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팀과 홀수가 아닌 짝수 박자에 박수를 치며 당김음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회중의 수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회중의 이러한 성숙되고 일치된 영성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16주간의 새교우 훈련 과정을 통



하여 그 답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가정의 헬로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 멋쩍을 수 있을 때 다가와서 그 어색함을 없애준 한우리반 섬김이들에게 고마움의 따스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금은 같은 오이코스에서 교제하며 지내는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가정이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찾아와 주셔서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함께 식사해주신 일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 과정으로 공부한 ‘확신반’에서는 체계적으로 다시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제 자신의 약점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했었지만 ‘삶의 목적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고, 내 삶 가운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하는지 다시 정리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들었던 새교우반을 통하여서는 헬로쉽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 배우면서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구나’ 하는 확신이 들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도 열정에 불타는 예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희 부부가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였습니다. 선생님들,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로 죽을 뻔 했다가 살기도 하고, 학위 과정에 있을 때 유학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딸이 병원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상상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에게 닥쳐오곤 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주셨고, 앞서 가셔서 그분의 ‘멋진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이곳으로 옮기신 것도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을 뻔 했다가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로 인하여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 메릴랜드 땅에서 우리 가정 앞에 새롭게 펼쳐질 그분의 ‘멋진 계획들’이 많이 기대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지령이를 뺏으면 꿈틀거리는 이유는 지령이를 제대로 확 뺏지 않았기 때문이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령이가 죽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상처입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고백해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1) 

나의 신앙고백

장경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라. (벧전 2:9-10)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 주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시며 날마다 그 영화로우심으로 인하여 나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말로서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당연히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수련회도 따라 다녔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으며 여름성경 학교와 여러 가지 교회행사 때마다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교회 생활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어떠한 목적을 향한 뚜렷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느 순간 세상에 눈을 뜨게 된 나는 건잡을 수 없이 흥미로운 세상 속에 휘말려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고, 몇 년 후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목사님이신 작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저는 그 성경책을 내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세상의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책이 내 머리맡에 있었기에 주님이 나



와 함께 하였고 세상에서의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제가 헤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농담조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사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고요. 너무나도 옳으신 말씀들이십니다. 제가 부모님께 행동으로 말로는 표현을 못해 드리지만 저는 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고 저의 아이들이 살게 되었으며, 저의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었기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까지도 주님을 멀리 했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태에 있는 아이의 영혼의 정체성을 걱정하게 되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 아이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이 희미하게나마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몇달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온 지 13년 만에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헬로쉽교회에 저와 아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감격! 찬양과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영광 속에서 저의 영혼이 다시 울려짐을 체험하였습

니다. 그날은 영상으로 보는 영상예배였는데 김원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착각하였고 한참 후에 목사님이 안 계신 것을 눈치 챘어요. 목사님의 힘 있으시고 명백하신 말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힘을 다시 얻게 되었고 한정되어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무한하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김원기 목사님의 확실한 비전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그러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으며, 기도 합주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많은 은혜 받은 것 중의 일부는 한우리, 확신, 목적, 새가족반을 통하여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으며,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기영 집사님과 한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에게서, 아름다운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교제의 기쁨과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주심 감사드립니다. 복진웅 집사님, 다시 한 번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창조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주시어 더욱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김정실 권사님, 성경을 다시 읽게 해주시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며, 주님을 닮아 가기원하게 하여주심 감사드립니다. 김덕규 장로님, 교회란 공동체에

대해서 더욱 명백히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헬로쉽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여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연일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쁘신 권사님께 이것저것 너무 귀찮게 하는데도 척척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해주시며 응답해주시는 권사님의 사랑과 헌신에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인영 목사님, 심방해 주시고 늘 기도해주시며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밖에도 이곳에서 4개월 동안 스쳐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에겐 4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김해정 사모님의 모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이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사랑 늘 기억하며, 늘 뒤에서 헌신하시는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 배우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헬로쉽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이 날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더욱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소서! 🙏



(VA 캠퍼스, 1월 20일)

제 60차 새가족반



(위줄 왼쪽부터) 장형렬 장로, 마범승, 마현경, 김광수, 김아성, 지은혜, 김연우, 김두환, 최고성, 이광수
(가운데줄 왼쪽부터) 김명숙 사모, 김기옥, 김미정, 서종수, 안상학, 김성준 장로
(아래줄 왼쪽부터) 김우성 목사, 이인송, 김해경, 김원기 목사, 차은규, 차승현, 지용한 장로

부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듯

글 - 김은경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 자라나는 걸 확인하듯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난 1월 20일, 19분의 ‘제 60차 새가족’을 환영하는 만찬이 버지니아 캠퍼스본당에서 있었다.

연달아 12주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메릴랜드 캠퍼스 시절부터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일을 미뤘은 차은규 형제 가족이 있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 긴 기간 동안 피해 다닌 노하우가 무엇인지...

12주 새가족 훈련의 마지막 교육으로 김원기 목사님과 가까이 마주 앉아 목회 방향에 관하여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장점들과 장로교와 침례교의 장점들을 모아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간에 궁금한 문제들이 해소되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듯하였다.

목사님은 훈련을 마친 새가족들에게 이제 한 배를 탔으니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가 되어주길 도전하였다. 서로의 자아가 살아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주변에서 보아왔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폐단을 버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글로벌화 된 리더쉽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자는 말씀을 나누었다.

이어서 헬로쉽 교회에서 오래도록 훈련받고 같이 생활한 아이들이 자라나 서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더라도 형제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

고 신앙을 서로 점검하며 지내고 있는 개척 초창기 제자훈련 받던 아이들을 예로 들려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아이들을 이 교회에 맡긴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낀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새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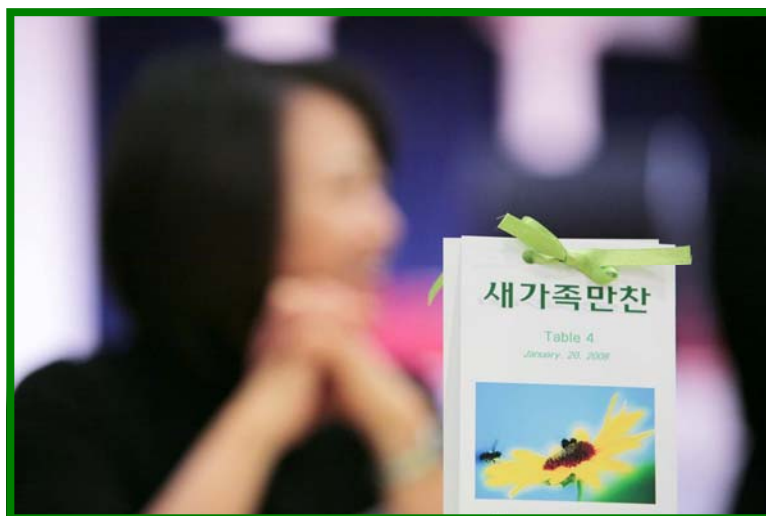
늘 사진 촬영의 뒤 배경이 되었던 로비가 공사로 인해 촬영을 할 수 없어 사진 촬영은 본당에서 이루어졌다. 단체사진을 먼저 찍고는 차례로 가족별로 목사님과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조명이 좋지 않아 여러 번 위치를 바꾸어야 했던 최고성 형제 가정, 가족사진 촬영 이래 최대의 가족 수가 아닐까 싶은 서대석 형제 가정이 있었다. 부모님과 외삼촌 내외 그리고 누나와 서대석 형제 식구 모두 10명의 다복한 가족이 사진을 찍었다. 교육 시간 내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가족사진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

이제까지 새가족 환영회 이래 최고의 음식이라는 칭찬을 받은 57기 새가족의 정성어린 섬김에 즐거운 만찬을 함께 나누고 오재현 집사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새가족들의 소감을 서로 나누었다.

김현경 자매님은 매번 교육을 받을 때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감사했다고 나누었으며, 김광수 형제님은 기존의 예배 형식과 다른 우리 교회 예배가 과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며 온 가족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며 한해를 열어가고 있음을 나누었다.

또한 지은혜 자매님은 2년 반 만에 비로소 훈련

을 마치게 되어 뿌듯하며, 어려웠지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 열성적이고 좋은 은사로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 이광수님과 보고 느끼는 것이 다인 듯 살아왔으



나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손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 고백한 안상학 형제님의 고
백에 우리 모두도 같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의
첫발을 내딛게 된 서종수 아버님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해소되었으며
앞으로 열심히 믿겠다고 모두 앞에 고백하였던 것
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세
례를 받았던 김기옥 형제가 있음이다.

뿌러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든든히 커가는 모습
을 보는 것 처럼 12주간의 새가족 훈
련을 마친 19명의 새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냥 흐뭇하였다.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교인들
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새가
족이 어색함을 떨치
고 적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성실히 섬겨
주신 분들의 노고가
새삼 감사함으로 다
가왔다. 🌈



말씀하옵소서

글 - 오장석



2008년을 시작하면서 김원기 목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는 편지를 바탕으로 신년 말씀을 전하였다.

편지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곧 ‘말씀대로 이루어질 지어다’이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사셨다. “2008년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김원기 목사는 권면하였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녔던 문제 중에 미적지근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 3:15) 김원기 목사는 “미적지근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적지근한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으로 인하여 열정이 식어 미적지근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식어버린 열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열정을 회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부르짖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적지근한 삶에 만족하려는 우리의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2008년에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맞추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하도록 만드셨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매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매번 성공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지만 2008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의 종이 여기 있다’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자세로 살기를 결심하는 기도를 드렸다.

예배를 마치고 워십센터를 나선 교우들은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신년 인사를 받으며 새해 아침 식사로 마련된 떡국을 나누었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축복하였다.



꿈꾸는 사람

글 - 이진아 (VA)



2008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란 주제로 신년새벽부흥회가 VA 캠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새해 첫 날부터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첫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5일 간의 새벽부흥회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다섯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많은 도전과 위로와 용기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으며, 또한 책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2008년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 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계 3:14-22) 가운데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아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2008년이 되기를 바라며,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듯하나 실상은 부요하다 하신 서머나교회(계 2:8-11)를 통하여 나의 실상은 어떠한가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지만, 고난의 시간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영적인 삶이 부요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 날,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계 2:18-29), 그러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목사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며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잡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넷째 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실력과 영적인
분별력도 있으나 첫사랑을 버려 책망받은 에베소교
회(계 2:1-7)를 통하여 첫사랑 때의 열정을 회복하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두아디라교회와 같이
겉보기에는 열심인 듯 하나 마음이 없이 행위만, 사
역만 있는 교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한 것은 별로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는 잊
어버린 채, 희생하는 듯, 헌신하는 듯, 섬기는 듯 하
나, 첫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교회일지라도 좇대를 옮기겠다 하시며 우리의 마음
을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겨
우 8년 전에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알게 된 나도
다시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나며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시 사
랑의 고백을 하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 없는 교회
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빌라델비아 교회(계
3:7-13)를 통하여 개인에게, 교회에게 도전의 말씀

을 주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
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
길 축복하셨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평
생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
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힘입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내어버리고, 나를 아시고
나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
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며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
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해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

Sarah Okochi

새벽부흥회에 간다는 것, 특히 중고등부 수련
회를 다녀 온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게 된

Going to the early Morning Prayer revival had
to be the most physically tiring thing, especially
after being at the Timothy winter retreat a few days
before. However, it was the best way to start off
the New Year.

Pastor Jamie's messages had always spoken to
me, but his messages during the revival spoke to
me even more strongly as he spoke about the



새벽부흥회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김원기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지만, 특히 이번 새벽부흥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더욱 더 그랬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았다.

1월 2일, 요한계시록 2:8-11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얼마나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대학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서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 고민은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전형적인 아시아가족 안에서 평판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갔는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학교에 갔는지로 나를 평가한다. 나는 작은 기독교 사립대학을 가고 싶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두들 나에게 그것은 시간낭비, 돈 낭비이며, 많은 ‘모임’들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원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상관하는가?” 나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에 소홀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 한 구석에서도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나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만약 좋은 학교

things I was going through and experiencing. It was as if his messages were personalized for me.

On January 2nd, the message was based on Revelation 2:8-11. Through this sermon, Pastor Jamie had shared about how we care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but that’s not what matters; only God matters.

As the time for college applications came along, I struggled to decide on what colleges I wanted to attend, which caused unnecessary stress. Living in a typical Asian family, reputation plays a huge role. People acknowledge you for going to a good school, versus going to a small school that people never really heard of. I wanted to go to a small Christian private college, but when my family and friends found out, they told me that I would just be wasting time, money, and miss out on all the “parties”. But like Pastor Jamie quotes, “who cares?!” I worried too much about what others might think that I neglected to hear what God was trying to tell me. However, another part of me just wanted to receive acknowledgement from people, which was purely out of my own selfishness. I thought that maybe if I go to a good school, people would acknowledge me more, but a very important thing that I learned and have to re-learn everyday is to die to myself. It’s not about me, but everything is to glorify God. In following God’s direction and not leaning on my own understandings, life will be easier and be more peaceful, but many times I take the harder route by thinking that I can do everything on my own and by reaching out to God only when I need Him.

Lastly, the key words, “hold on”, in Revelation



를 가게되면 사람들은 나를 더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 복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죽어야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더 쉽고, 더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순간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더 힘든 길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5의 키워드인 '굳게 잡으라'는 내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힘을 준다. 혼란 속에 꼼짝없이 빠져있을 때마다 나는 여러번 쉽게 포기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듣지 못하면 굳게 잡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가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요청할 때마다 바로 나를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완벽한 때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이 모든 고통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인내하고 그 분을 굳게 잡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나는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진실로 극복할 수 있다.

학교를 가는 주중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확실히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과 자극을 주셨다. 이번 새벽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에 참으로 감사한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으로 있을 새벽부흥회에 모두 참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멋진가!!

2:25 motivates me as I face hardships in life. So many times when I'm stuck in turmoil, I give up easily. It's really hard to hold on when you pray and don't hear back from God immediately. Sometimes I expect God to pull me out of my debacle the moment I ask, but I realize that God has his own perfect timings. God is our First and Last and had promised that there will be an end to all of this and that if we persevere and hold onto Him, He will help us overcome, for we will WIN in Christ. And knowing this truth helps me tackle down road blocks that come my way, but not only that, God's truth helps me overcome the fear of failure, for I know what God has promises me.

Waking up at 4:00am on a school night every-day was difficult, but it was totally worth it. God has opened up my eyes and gave me a different outlook on how to live my life according to His word. He has given me the security and the motivation to cling onto Him even more. I am so thankful that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this revival and encourage everyone, especially the Timothy students to come out to all the other upcoming early morning revival. What a great way to start your morning by worshipping God!!

jung trio

Mission's Fundraiser

Date: March 8, 2008
Time: 6 PM
Ticket Price:
\$12 - Student discounted price
\$20 - Regular
\$22 - Event day
Ticket info: 301-335-0217,
301-444-3110 Ext. 320 or 326

일시: 3월 8일(토) 오후 6시
장소: MD Campus
Worship Center

입장료:
일반 - \$12
일반 - \$20
현장 구입 - \$22

문의: 301-335-0217

More info on jung trio
at www.jungtrio.com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1801 War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www.fellowshipusa.com | www.fellowshipusa.org

기름 부으심

지난 12월이 다소 파스했던 탓이었는지, 신년의 첫 주는 무척이나 쌀쌀하게 느껴졌다. 낮은 기온과 불어오는 바람이 합하여져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추위였다. 하지만 워십센터로 들어서는 순간 찬양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열기를 직감할 수 있었다.

1월 3일부터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있었던 신년 저녁부흥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토해내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시간들이었다.

글 - 오장석

첫째 날, 예배와 찬양의 기름부으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와 찬양의 자세를 알 수 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매 여섯 걸음마다 제물을 바쳤던 다윗. 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낭비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그의 사랑이었다. 또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우리도 항상 진정한 예배와 깊은 찬양을 드리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필요하다고 김원기 목사는 전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투명하게 마주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바,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였다.

둘째 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기름부으심.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갈멜 산에서 마주한 엘리야.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신의 이름을 불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싸움을 걸었다. 인생 가운데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 싸움을 걸고 있는 엘리야 역시 그렇다. 바로 이 순간 승부가 나야만 한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김원기 목





사는 지적하였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앞으로 수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그 뒤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 역시 아합 왕을 피해 숨어

살아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비 내릴 것을 전하라 명하셨다. 엘리야에게 있어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해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모두를 죽였다. 그런데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영적인 면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는 뿌리 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이전보다 더

무서운 함으로 다가온다. 죄가 무서운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경건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기름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고 김원기 목사는 전하였다.



셋째 날, 사역의 기름부으심

목사와 전도사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명과 사역을 주셨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할 일을 감당하도록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 기름부으심이 있다. 세상적으로 크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던 성도들의 교회로 지적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신년 저녁부흥회를 마쳤다. 





신년제복부흥회



하나님의 선물

글 - 권혁준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면 바쁜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합니다. 2007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 권사님께서 주셨다며 아내가 선물을 건넵니다. 정성껏 포장한 선물이기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좀 허전하던 심사가 풀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아든 저는 곧 약간의 실망. “이거 책이네. 차라리 맛있는 초콜렛이면 좋으련만...” 하여간 포장지를 조심스레 풀어 책의 제목을 보니 ‘하늘의 언어’. 저는 순간 몇 주 전의 일을 회상하며 책의 내용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오이코스에 갑상선암이 재발되어 수술을 기다리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인영 목사님께서 심방을 다녀오셨지만 구역을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심방을 하고 싶다가에 저희 부부가 함께 심방을 하였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면서 몇 분은 (실제로 저를 제외한 모든 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언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저에게는 무척이나 긴 기도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방언의 은사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고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유익하다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때 일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권사님께서 책을 선물하신 듯 합니다.

큰 기대 없이 책을 읽기 시작한 저는 이내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사람 글 좀 쓰네.’ 저의 교만했던 마음이 천천히 열리면서 간증 중심의 책 내용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지은이를 확인하고서야, 2007년 40일 새벽부흥회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했던 김우현 감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



이 인상적이던 집사님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전 14:2)”는 말씀이 저에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현대교회는 너무 지성적이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는 지은이의 지적도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모양의 유익한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의 은사를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은사를 내 임의로 평가하고 내게는 필요없다며 강변하던 저의 교만함을 회개해야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방언 받으려고요. 돌이켜보면 무척 무모해보이기도 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저는 구하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귀한 선물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니 방언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순간 저의 마음에 백일 동안 기도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천성이 게으른 저에게 백일 동안의 기도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아시잖아요. 저는 백일 동안 기도 못해요. 지금 방언주세요.” 껍껍거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방언을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감격이 저를 미칠 듯이 기쁘게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아무에게도 이 소중한 만남을 알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혼자 히죽거리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방언을 받은 아내는 오이코스에서 기도할 때 가끔 방언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오이코스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방언하지 말라고 했으며 아내에게 편잔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니 방언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고, 제가 방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읽으며 방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지만 충분치 못했고 목사님들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바쁜 연말이라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08년이 되었고, 교회에서 저녁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새벽부흥회에 익숙한 저희 부부는 색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교회에 갔습니다. 부흥회 첫날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방언을 예로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시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에 걸쳐 나름대로 방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며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목사님의 입에서 하나 둘씩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너무나도 틀림이 없고 자상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니 금식수양회를 한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양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와 소그룹모임을 마치고 아내가 속한 소그룹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저는 몇몇 분들이 모여 기도를 준비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여 계셔서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모임에 가보니 장로님께서 제가 최근에 방언 받은 것을 들으셨다며 마침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방언을 받기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니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을 간증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얼마나 사모하시면 이 밤중에 기도를 하실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그날 밤 방언을 사모했던 분들이 모두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한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방언하는 아내를 편잔주던 제가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방언이 구원의 조건도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도 될 수 없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전 14:4)”라는 말씀처럼 방언의 은사를 통해 저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는 방언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지고 이해도 빨라졌습니다. 셋째로, 방언 기도를 시작한 후로 기도시간이 많이 늘었고 기도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졸라서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가 지금 저에게 필요하기에 허락하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서성거립니다. 오늘은 뭘 달라고 조를까 고민하면서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좋은 길로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글 - 오장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목 놓아 부른 이름이었다.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이틀간 포토맥 캠프에서 있었던 금식수양회에서 메릴랜드 캠퍼스, 버지니아 캠퍼스 한어 회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였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서일까? 시작부터 깊은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는 교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예수의 이름을 외쳤다.

금식수양회를 시작하면서 김원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돕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라며 우리의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죄로 타락했던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시켜 주시면 어떤





조건과 환경 하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김원기 목사는 정의하였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다. 비록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섬

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토요일 새벽, 장승민 목사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장승민 목사는 지적하였다.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내 배를 굶어서라도 채워야겠다는 열망인 것이다. 장승민 목사는 말씀을 통해 “어떤 인생도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면 인생이 뒤바뀐다”




고 전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자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해로운 것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배설물을 밀어내며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지적하는 장승민 목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따라서 내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욱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전히 주님을 아는 그 날까지 오직 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 바 되어야만 한다”고 장승민 목사는 권면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교우들에게 김원기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연결시키도록 당부하였다. “아무리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특별히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소원이 생기면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자세로 첫발을 내딛으라고 김원기 목사는 도전하였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각자의 쓴 뿌리, 이기심, 질투,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 재물을 향한 욕심, 정욕, 거짓말, 비방 등과 같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기도하였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성장해가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각자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는 금식수양회였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갑니다

윤미라



2007년을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또 VA 캠퍼스 청년부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기에 더욱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편안한 연구원 생활에서 많은 준비없이 시작한 새로이 박사과정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VA 캠퍼스 청년부의 사랑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섬기던 성경공부 그룹을 떠나 청년부로 오면서 말씀보다는 달콤한 교제에 중심을 두고 섬기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섬김이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졌으며, 하나 둘 떠나는 지체들을 보며 아파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며 동시에 부담은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목사님께서 떠나시고 저 또한 학교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출장이 잦아지면서 더욱 무너져갔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오이코스 목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부 영혼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데... 다른 지체들 또한 저리 힘들어 하는데 저는 도울 수도, 안타까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돈을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캠퍼스 성경공부를 시작하고 토요일에 MD 캠퍼스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무너져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여러면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2007년 크리스마스 주간엔 갔던 MD 캠퍼스 청년부 선교 수양회는 영혼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VA 캠퍼스 새벽 부흥회, 내 뜻

으로 내 힘으로 이뤄내고자 했던 새벽기도. 첫날 잠한 숨 못자고 가서 해냈다 생각했었던 어리석음, 둘째날 극도의 피곤함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알려주셨으며,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탓하고 있던 나에게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지 알려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나의 적은 능력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서 큰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은 능력에 충성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고 또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라 (Hold on)”는 말씀이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설계해나가야 할지 알려 주셨습니다.

새벽기도와 함께 있는 MD 캠퍼스의 저녁부흥회. DC에 사는 저에게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나약한 육신 때문에 처음에는 괜한 걱정거리로 다가왔었습니다. 괜히 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부족한 지체로 계산해보고 맞춰보다 그냥 이끄시는 데로 하리라 맘 먹으며 참석한 그곳에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환상의 새해 첫 주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넘치는 은혜속에서 시작한 나의 일과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금식수양회로 부르시더니 매일 매일의 삶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욱 나아가길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번 한 해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 그를 통해 더욱 깊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매일,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 때를 기억하니?

박경남



로 사용하소서.
나는 할 수 없
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
여 주옵소서”
하며 주님을
향해 마음껏
달려갔다. 주
님은 나에게
시편 23편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 “첫사랑 때를 기억하니?”하며 세 번을 나에게 물어오셨다. 그때 나의 머리 속에는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 감동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잠시 후, 주님은 나에게 또 물으셨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었던 때를 기억하니?”고.. 나는 대답했다. “그럼요”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여 일어서지 못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다. “주님,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옛날에 헌신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하면서 내 안에서 내 생각만을 막 말하고 있었다. 그때 또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경남아! 난 네가 필요해”하는 그 음성에 난 울고 말았다. “그러면 주님,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일어설게요.” 그렇지만 그날 그런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았다. 난 속으로 기도했다. 무엇 때문에 재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어서지 못한 것에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해서. 새벽 일찍 예배실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새벽 예배시간 찬양 중에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하심,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 남편이 뭐라고 말한대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하며 일어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

말씀과 ‘여호와이레’라는 말씀을 주셨다. 혹이라도 내 생각인가 하고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예배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듣게끔 하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

몇 년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글을 쓰며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써왔던 노트를 읽게 되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의 입술로 토해내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가족과 특히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변함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게을러서 요즘 기도노트를 쓰지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거저가 없으심을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남편과 두 자녀를 동역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중고등부

중고등부 겨울 수양회가 지난해 2007년 12월 27일-30일에, 스카이크로프트 수양관에서, 까를로스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마음의 예배

Rachel Kim

‘마음의 예배’.. 중고등부 수양회를 가기 전에는 이 제목이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양회’일 뿐이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처음으로 가는 수양회였음에도 저는 수양회를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던 수양회를 한 두번 간 적은 있었지만, 이번 수양회에서는 무엇을 기대해야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양회에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카이크로프트 수양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까를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분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나는 이번 수양회에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까를로스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신 분이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흥미롭고 영감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동안 저는 찬양과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던 것은 물론입니다. 찬양시간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것도 저를 방해하지 못

‘Heart of Worship’... it didn’t mean much to me before the retreat. I thought, “Yay, another retreat to chat with my friends!” Even though this was to be my very first retreat in Timothy, I thought of the retreat as yet another opportunity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lthough I’ve been to a couple of powerful retreats before, I wasn’t sure what to expect from this one. However, I learned that God had many things planned for me at the retreat.

When I arrived at Skycroft and heard Pastor Carlos preach for the first time, I realized that God was using him to speak to me. He told us to push aside all distractions and ask for God’s presence, and I talked to myself, “I’m going to ignore everything and focus on God during this retreat!” God-focused Pastor Carlos shared very funny stories, making the sermon interesting and inspiring. He helped me understand God a lot better.

Throughout the retreat, I enjoyed the worship and praise, and, of course, Pastor Carlos’ sermons. Praise still remains as clearly as if it happened yesterday. I simply closed my eyes, lifted up my hands, and praised him, with nothing in my way. I ignored everyone around me and I didn’t care how I looked to others.

When it was time for the sermon following shortly after the praise, I was sad because the

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런지 신경쓰지도 않았 습니다.

찬양이 끝난 뒤 바로 설교시간이 되었을 때, 찬양시간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카를로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주실까?’라며 기대감으로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는 수양회 기간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였고, 수양회 마지막 날 있었던,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잼(JAM) 시간에는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 뛰어다녀 선생님들이 바닥이 내려앉을까봐 걱정까지 했습니다. 수양회의 마지막 날,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 새해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비기독교 노래를 듣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저를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저의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



seemingly-short praise time was finished, but on the other hand, I was eager and excited to hear more stories from Pastor Carlos. ‘What would he teach me today?’ I

wondered with anticipation.

His sermons made me think all throughout the retreat while JAM session on the last day made me overflow with joy and was my favorite part of the retreat. We shook, the floor so hard jumping up and down, praising God that our counselors were afraid the floor would give out from under us! On the last day of the retreat, we discussed our goals for the new year in our small groups. I promised not to listen to non-Christian songs and to read and meditate the Bible on a daily basis. Thank you God for blessing me through the retreat and help me achieve my goals in getting closer to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



The Greatest turning point

Aaron Guo


The first time I went to a retreat, I was a rising 6th grader. To me, retreats were just places that you went to encounter God and have fun. That was in the summer of 2006. The retreat was fun, and I had a great time, but I wasn't taking it really seriously, so I didn't get touched by God. Sure, people prayed for me, but I didn't really encounter God. I decided that next time, I would take it seriously, but I didn't, and once again, I had fun, but I didn't meet God. I decided that this time, I HAD to take it seriously.

So, finally, I did. The retreat was amazing, not to mention AWESOME,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finally encountered God! Being touched by

God at this retreat will probably be one of the greatest turning points of my life.

On the very first night, I wasn't expecting it, but I was convicted by God to repent and let go of my sins, which were stopping me from experiencing God's true and unconditional love. On the second and third afternoons, during Heart of Worship sessions, I was similarly convicted, and I repented. On the third, final, and most powerful night, I was blessed and prayed for, along with other people, first by Pastor Carlos for my timidity, then by the rest of the congregation for healing. During the JAM(Worship) session afterwards, everyone was jumping up and down, with the room shaking and the floors threatening to give out under us. But we didn't care. We were praising God with all our hearts, and nothing else mattered to us. This retreat was great, and I can only hope that the future retreats will be even better.


"You only get out of a retreat what you put in. don't miss out." - Danny Chung 🇵🇸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

일시: 2월 25일(월) ~ 3월 22일(토)
월~금: 오전 5시, 토: 오전 6시
장소: MD, VA 각 캠퍼스



www.Fellowshipusa.com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 301. 444. 3100
VA Campus: 1439 Shepard Drive, Sterling, VA 20164 T. 703. 444. 5634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떠나는 쑹화강, 김다린 선교사

글 - 오장석

지난 1월 13일, 2차 파송을 받고 나가는 두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가 커버넌트 채플에서 있었다. 이날 김다린 선교사는 안식년을 지내고 두 번째로 나갈 때에는 (사역에 대한) 무언가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막상 때가 되고 보니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막막함 가운데 나간다고 본인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아마도 사역의 현상이 북방선교인 만큼 현지의 불확실성 때문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해주실 것으로 믿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역에 대한 계획도 조금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2차 파송 기도회를 드렸다. 또한 “빵 공장으로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해나가며 복음을 전하고자 소망한다”면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본인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다”는 설레임도 나누었다.

김원기 목사는 권면의 시간을 통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사역을 하다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내놓으라고 재촉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라”고 전하며 김원기 목사는 “아름다운 복음의 푸른 계절이 찾아올 것을 믿는다”며 축복의 인사말을 건넸다. 



열린 사고로 삶의 조화를 이루는 지휘자 이형기

인터뷰, 글 - 이연일

추수감사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듣던 교우들은 연주하는 학생들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지휘하는 분의 모습에 눈을 움직였다. 악기의 음색을 살려서 편곡을 하고 지휘봉 잡은 손 동작의 조절로 화음을 이루는 조화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문화를 향상시키며, 우리 주변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이형기 선생님을 만나 보았다.

질문: 헬로쉽교회에 온 시기는 언제쯤이었나요

이형기: 2007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던 2월 21일입니다. ‘곧 보리라’는 주제로 40일간 새벽부흥회를 하였는데 그 때가 말로만 듣던 헬로쉽교회를 처음 찾아온 때입니다. 그 기간 중에 세미나가 있어서 출장을 갔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은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혜정 사모님의 권유로 부흥회에 이어서 금식수양회까지 참석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된 것인데 우연 아닌 우연의 연속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형기: 샌프란시스코로 강의 차 출장을 가 호텔에서 인터넷으로 무엇을 찾는 가운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도 헬로쉽교회 사이트를 찾을 생각 안하다 오히려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 헬로쉽교회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교회일 경우 ‘org’를 많이 쓰는데 헬로쉽교회는 ‘com’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웹사이트의 여기 저기를 뒤적이는데 담임목사님과 김영채 목사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교회의 비전, 철학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었는데 목회자의 열려있는 목회 방침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시야로 미래를 향해 펼쳐진 말씀과 소명은 저로 하여금 저희가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 유명한 교회에 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막내 딸아이가 본 교회에서 운영하는 커버넌트 크리스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가끔 차편제공을 하느라 와 볼 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질문: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이형기: 웹사이트와 새벽부흥회와 주일예배에서 느끼는 감격과 열정이 별로 다르다는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세 가지인데 첫째, 새벽 부흥회에 간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척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독특할 정도로 친절하시고 깊은 관심을 주십니다. 처음 본 저에게 어색하지 않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들도, 오케스트라 공연 후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오이코스에는 참석을 안하나 소속된 분들이 배려해주시며, 이메일로 참석하라고 알려주시고 집으로 방문하라고 연락주십니다. 1년이 되어감에도 아직까지 신혼시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친절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열심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들 중현(Joshua)이가 중고등부 캐이더스버그 지역 오이코스 소속인데 모임이 있는 주 중에는 두 분의 오이코스 맘이 연락을 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주중이나 주말에도 적

극적으로 움직이시는 평신도 사역자 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십니다. 세번째, 열린 예배에 대한 자세와 열린 마음인 분들이 여전히 많으셔서 좋습니다.

질문: 현재 하는 일은 어떤 분야의 무슨 일이신지요.

이형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분교 약학대학 워싱턴센터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에 조지타운 의대에 연수차 와서 의약품 개발과학센터와 피츠버그 의대 병원을 거쳐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방의학, 가정의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만큼 제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시기가 늦었던 것이니 제 영어 실력도 그만 그만할텐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께서 후하게 보아주셨기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와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이형기: 어린시절 교회에서 찬양을 듣고 접했던 것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렇게 성장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의 보컬그룹 음악부문 리더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대에 입학할 하여 공부하면서서도 음악에 대한 미련이 있어 의과대 합창단에서 지휘를 하였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음악 전문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으나 전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음악의 기본을 배우고 익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직업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이형기: 실제 저의 일과 오케스트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의료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음악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고, 아마추어이지만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그룹이 있지 않나 싶네요. 음악도 의료분야도 섬세하고 깔끔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서는 통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연관성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질문: 저희 교회의 오케스트라의 특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형기: 저희 교회의 오케스트라는 지난 10월에 시작된 5개월의 짧은 시기인만큼 악기 구성이 다 갖춰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악기의 구성으로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려해서 연주를 가장 잘 하도록 이끄느냐 하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과제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주류이지만 연령층도 확대되고 악기 구성도 규모있게 모아진다면 훨씬 더 훌륭하게 연주될 것입니다.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23명의 단원이 모여 연주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연주의 횟수가 늘어나면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도 많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선보인 곡은 예전에 제가 편곡하였던 것들인데 요즘 요긴하게 잘 사용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악보를 구입하여 편곡 하여야겠지요.

질문: 다루는 악기 종류와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형기: 기타를 평소에 연주합니다. 색소폰, 클라리넷도 즐겨하는 악기지요. 편곡을 할 때나 연습할 때 한 소절을 매끄럽게 만들고 연주하기 위해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끄럽고 소음이라고 할 만도 한데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의 항의가 없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기 구입을 할 때 반대하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은 개인 집에서 살기에 연습공간이 그런대로 편안하지만 예전에 아파트에 살던 시절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안 일을 돕고 여유있게 연습할 시간은 밤 10시경이 되는데 그 시간에 연습한다는 것이 이웃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차 안에서 연습을 하였는데 경찰이 덩그마니 서 있



는 차가 수상하게 보였는지 조사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단하게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형기: 아내는 감리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음에도 편안하게 배려하지요. 큰 딸이 현재 코벨대 2학년이고, 둘째가 8학년인 아들 조수아(Joshua)이고, 셋째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인 CCS에 다니는 4살 유니스(Eunice)입니다. 첫째, 둘째 아이는 저도 철없는 상태에서 양육하느라 잘 몰랐고, 셋째 아이는 아내의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여 걱정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위의 두 아이는 한국에서 출생을 하였고, 막내는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몫을 잘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내되시는 목사님과 처음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형기: 제가 의대 본과 4학년 때 남산에 있는 모 감리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갔을 때 감리교 신학대학을 마치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 뒤 그 교회에 실습차 나온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세살이 연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구혼하여 1년간 연애했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리다싶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큰 딸과 제가 떠 동갑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복무한 뒤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젊은 시절에 임원으로 근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질문: 하루의 일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형기: 제가 움직이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학교, 집, 학교, 집 그리고 교회가 거의 전부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쁘지만 그 가운데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요. 일주일에 며칠은 막내딸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가 출근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식사하고 설거지 하고 가끔은 빨래도 하고 모든 집안일을 가리지 않고 한 뒤 아들이 공부할 때 봐 줍니다. 영어, 수학, 물리 과목 정도를 돌봐주는데 한시간 반 정도 소요합니다. 요즘은 신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숙제를 내주고 점검을 하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한 뒤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의 일상입니다. 가끔은 집안 페인트도 하고 얼마전에는 부엌 싱크대의 수도꼭지 교체하는 일까지도 했지요. 한가하게 늘어져있을 시간이 없는 것이 요즘의 삶입니다.

질문: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이형기: 미래의 교회음악을 책임질 학생들을 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동시에 음악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이 되어 성취감을 이룬다고 봅니다. 또한 훈련과 책임을 동반한 인성교육의 현장으로 음악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연습을 충실히 한 후 모여 화합을 이루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올랐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정을 참고로 해야겠지만 내년 봄에 오케스트라 연주 발표회를 하면 좋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원들의 격려와 후원금 모금 차원도 좋구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수고의 인사도 겸하여 말입니다. 또 학생가운데 자질이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휘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성과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배우도록 한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면 분명 그 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신실하게 들어주셨으니까. 토요일 새벽예배 후에 받아든 따끈하고 맛있는 수프가 인터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져 먹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밖의 햇살은 따스하게 퍼졌다. 희망을 안은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

(What God is Doing in Our Lives)

Mrs. Forkkio는 남편 James사이에서 대학생 Jeremiah, 중고등부에 있는 Daniel Forkkio, David Forkkio, Sam Forkkio와 초등부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초등부 안내석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글 - Denese Forkkio

몇년 전, 저는 해외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클리프(Wycliffe) 성경번역 선교사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었고, 그들처럼 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에 있는 위클리프 협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협회는 선교사들이 성경번역 사역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선교지에서의 여러업무들을 돕기 위해 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선교사에게 보내는 일로 성경번역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번역은 매우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글로 옮기고, 번역을 하고, 출판이 되기 전에는 점검에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위클리프 협회는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수백명의 봉사자들을 보냅니다. 봉사팀은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짓거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고치는 일들을 합니다. 도로를 고치고 임시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봉사자들의 일입니다. 사무업무나 여름성경학교를 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번역 사역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위클리프 협회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해외로 봉사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전 세계에 봉사자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왔습니다. 현재 저는 아프리카에 봉사자 팀을 보내는 일에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케냐의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할

A few years ago, James and I began looking for a future opportunity to serve God full-time overseas. We had both heard good things about Wycliffe Bible Translators and believed with them that everyone should have access to God's Word. In the process I stumbled across an opportunity with Wycliffe Associates to volunteer from home.

Wycliffe Associates supports Bible translation by sending lay people like you and me to do practical things that would otherwise take missionaries away from their translation work. Bible translation is very time consuming. It involves learning a language, developing it into a written language, translating, then checking and re-checking the translation before it can be published.

Wycliffe Associates sends hundreds of volunteers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enable Bible translators to focus their time and energy on translating God's Word. A team of volunteers can build training facilities for translators or repair a school for missionary children. They can construct roads and airstrips. They can do office work or lead Vacation Bible School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verage people like you and I can do to support Bible translation!

My role in this is to send the volunteers overseas. Over the last few years I have been matching individual volunteers with needs all over the world. I am now transitioning into the more focused role of sending teams of volunteers to Africa.

With this new role came the opportunity to attend a mission conference in Kenya. The goal of my trip was to get to know the missionaries I am serving in Africa and work with them to formulate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제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을 알고, 현장에 더 많은 봉사자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평생을 갈 것입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책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 나라 말로 읽을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2의, 3의 언어로 된 성경책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떨겠습니까? 그 언어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17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믿는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설교가나 선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위클리프 협회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도록 저의 마음을

a plan to get more volunteers to the field. I feel like I accomplished my goal and so much more! The relationships I formed will last a lifetime. The missionaries I met really have a heart for God and want to see His Word available to everyone.

It is so easy to take God's Word for granted. We have had access to it all of our lives. Imagine if you could not read the Bible in your own heart language. What if you could only read it in a language that was your second or third language? Maybe it is not in a language that you can understand at all.

In Romans 10:17, God said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God's Word is essential. It is the sword of the Spirit. God uses it to draw us to repentance. The responsibility lies with each of us as believers to share God's Word with the lost. We can't sit idle and wait for someone else to get the gospel to the lost. The Great Commission is for all believers. Even if we are not preachers or teachers there are things we can do.

When I was in Kenya I felt God pulling at my heart to serve with Wycliffe Associates full-time. It had been on my heart before, but now I am even more convinced. The needs are tremendous. Over these past few years, I have been volunteering on



이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최근에는 주말, 저녁, 심지어는 새벽에도 협회에서 일을 하며 봉사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훈련받은 사역 즉,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지원금을 모금한 적이 없었기에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번역 선교에 부담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지원해 줄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my lunch hour at work. Lately, I have been trying to increase the time by working on the weekends, evenings or sometimes in the early morning hours. It is not enough, though. I need to do this work full-time. Sending volunteers overseas to help missionaries frees translators to do what they are trained to do...translate God's Word into the heart languages of people who don't have it.

I need your prayers. In order for me to do this full-time, I have to raise all the funds for my support. I have never raised funds before, so please pray that God will show me what to do. He is the One we serve. Pray that I will trust Him to guide me each step of the way. Pray also that He will raise up people with a heart for missions who will support me in this work.

어느 성도(원처리)의 푸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너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요번 주에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에 힘쓰도록 하라.

하나님 아이들 학원 라이드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집안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할게요.

네 이웃을 돌아보아라.

저두 그러고 싶은데요, 제 코가 지금 석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라.

하나님 저 정말로 피곤하고 바빠서 그런데요, 정말 내일은 꼭 해보도록 할게요.

너의 물질을 나누어라.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이담에 늙으면 노후 대책도 해야 하는데 이담에 잘 살면 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에 충실하여라.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에 가면 정말 웬수같은 사람들 있지요?

성경공부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집안의 웬수들은 생각만 하여도 짜증납니다.

하나님 음성을 그들에게 주셔서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죽음의 공동묘지가 생수의 강으로 변하여 중국의 많은 젊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곳 연변 땅에 발을 디딘 지도 어느새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주위환경과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긴장하고 어려웠던 날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알게 되어 2008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려집니다.

지난해 2007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학교사역 -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 학부장을 맡아 2년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3월 학기부터는 IT교육원이 새로 설립되면서 원장 직을 맡아 섬겼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만으로는 많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조달할 수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뽑아 단기로 IT 교육을 시켜 IT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업시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지난 4년 동안 지도하던 학생들이 드디어 졸업을 하고 직장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조심스레 보냈는데 사

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월에는 신입생들과 수련회를 가지고, 운동회 때에는 같이 뛰고, 대청소날에는 같이 청소도하고 졸업여행, 북경, 상해로 회사 방문할 때도 같이 동행하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의 가정문제(대부분이 편 부모나 부모 없이 자랐음), 재정문제 등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일, 복음제시, 성경공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준비위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개교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건물은 다 완공되었고 지금은 기자재가 준비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북한사역 -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의 동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령지역에 직업학교와 빵 공장 설립).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영접하며 같이 동역 할 수 있는 길들을 의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지체장애자 70여명을 아주 성실히 돌보고 있는 동산원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데 이곳은 재정적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도시 도문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번 3월 학기에 영어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헬렌선교사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연수를 수료하고 학교에 돌아와서 가을학기부터 러시아 권 유학생들에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저녁에는 사회교육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원에는 과기대 교직원들과 연변대학(연변에서 가장 큰 대학 - 학생수 2만여명) 학생들 그리고 사회인들이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폭넓은 선교대상들입니다.

서울에 계신 장인, 아틀란타에 계신 어머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딸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기쁘게 지내고 있으며 아들은 IVF 간사로 10년을 섬겼다면서 기념패를 받으며 아틀란타에서 열심히 대학생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제 십일시에 부름 받은 포도원의 품꾼같이 하나님께서 선교현장에 불러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저희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역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들은 2월12일 이곳을 떠나 다시 현지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무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2.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3.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도록
4.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믿음과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5. 평양과기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곧 개교 할 수 있도록
6.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건강을 주시도록 특별히 시력회복을 위해서
7. 자녀들도 맡겨진 사역 들을 온 정성 다해 잘 감당 하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후원 하실 때에는 수표를 Global Partners 로 써주시고 Memo 란에 장요셉이라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부르거나 기록 할 때에는 장요셉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lobal Partners, USA

501 N. Brookhurst St. Suite 200

Anaheim, CA 92801

(714) 774-9191 Fax: (714) 774-9192

평양과기대 후원금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표는 NAFEC 로 하시고 Memo 란에 평양과기대후원이라고 기록해주십시오.

Northeast Asia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

3440 Wilshire Blvd Suite 545

Los Angeles, CA 90010

(213) 382-3740 Fax: (213) 382-3743

믿음의 햇수와 성경읽기

차주건

새해를 시작 할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마음의 작정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맥체인 성경읽기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와 같이 시작은 했으나 나는 매번 도중하차를 하였는데 아내는 끝까지 마치는 데 도전을 받았고, 또 마침 오이코스도 안식년을 가지게 되어 맥체인 성경 읽기에 다시 도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이른 아침 시간으로 바꾸고 무거운 성경책 대신 PDA와 맥체인 차트를 어디든지 가져다 다니면서 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 했습니다.

하루하루 차트를 지우며 성경을 매일 매일 읽다 보니 몇 달이 지나고 약간의 습관도 생기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위로가 된 구절은 성경 말씀이 아닌 맥체인 차트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너무 완벽 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에 헌신 하십시오.’ 와 또 ‘너무 어렵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분량을 끝을 내라고’ 하신 황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읽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형편상 5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참석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맥체인 읽기로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지루하게도 느끼고, 또 때로는 너무나 흥미 진진 하여 다음장을 기대도 해 보면서 빠지지 않고 읽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맥체인 성경읽기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날 장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큰소리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믿음의 햇수만큼 읽지 못 했다면 어디 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손가락으로 세어 보니 제가 믿은 햇수와 성경 읽은 횟수를 아무리 맞추려 해도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 말씀은 또한 큰 도전이 되었고 12월 31일에 결국은 끝까지 빠짐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햇수와 성경 읽은 횟수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지만, 말씀을 읽는 이 귀한 습관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간격이 더 넓어지지 않도록 하려하며 2008년에는 우리 오이코스 가족 모두 함께 맥체인 성경읽기에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비결

차옥순

2005년 1월 1일부터 맥체인 성경읽기를 시작해서 지난해 2007년까지 3번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숙제하듯이 읽기 시작하여 말씀이 재미있고 은혜가 될 때는 일주일씩 미리 읽고는 뿌듯함으로 일주일 놀다가, 말씀읽기가 지루하고 힘들면 며칠씩 밀렸다가 읽기도 했습니다. 부담스럽고 어렵게 숙제를 마치듯이 첫 해를 마쳤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맥체인 성경을 읽을때도 또 다시 생소하게 느껴지는 많은 부분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보다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맞추어 읽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도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사 복음서를 읽을때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보다 더 지루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감당할 수 있었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을 표시해서 다음날 큐티 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맥체인을 마치고나니 그래도 조금은 습관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맥체인 성경읽기를 시작하면서는 말씀이 조금은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소한 부분의 말씀이 많지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 했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던 분의 말씀도 그리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분량을 읽는데 20 - 30 분 정도 소요되는데, 매일 충실하게 읽는 것이 한꺼번에 읽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훈련이 되기를 바라며 2008년은 더욱 성실하게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혹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읽세 읽세 짧어서 읽세

임도량

2007년은 나에게 참으로 놀랍고도 은혜로운 한 해였다. 주님을 영접한지 어언 6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다녀본적도 없었던 내가 미국을 오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고 서리집사 직분도 받았다. 6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다. 헬로쉽교회를 처음 나올때만 해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그냥 자식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 따라갔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럴때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처음 한우리반을 들어갈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씩스럽고 웃음이 나온다. 성경공부를 시작할때만 해도 그랬었다. 정대영 장로님이 인도하는 반이었는데 반에 들어갈 때 항상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무슨 질문을 할까?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었다. 그래도 주님을 영접한 이상 열심히 해보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부흥회며 바이블 아카데미, 여성수양회, T.D, 금식수양회 등등 수없

이 많은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이 모든것이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다.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다. 모르고 잘못하면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잘하면 더 잘하라고 칭찬도 해주실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도 공짜로는 은혜를 안 주신다는 진리를 맥체인 성경읽기를 끝내고 예쁜 자주색 성경을 선물로 받고 또 깨달았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맥체인 성경읽기를 2003년, 2005년 두 차례나 실패했다. 그것도 몇달씩 잘 읽다가 한국에 갔다오게되던 실패.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가는것도 포기하고 악착같이 열심히 다 읽게되었다. 그리고 이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귀한 선물을 받았다. 성경을 꼭 안고 생각했다. 자식들한테 남겨 줄 유품이다. 아!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자식들한테 남겨줄 유품이 없었음을 알고 계셨던것이다. 이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반질반질하게 빛나도록 손에서 놓지말고 하늘나라 갈때는 자식들한테 물려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답고 광명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눈물도 흘렸다. 그 씩스럽기만 하던 아멘! 할렐루야! 도 저절로 나온다. 찬양을 할때 절대 올라가지 않았던 손도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도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은 후회도 했었다. 좀 일찍 짧어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읽고 돌아서면 생각이 잘 날때. 설교시간에 정말 긴장하고 열심히 잘 듣는데도 기억이 잘 안날때. 얼마전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한다. “노세 노세 짧아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다. 성경 말씀도 읽세 읽세 짧아서 읽세, 늙어지면 깜빡거리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는 그 시간만은 즐겁고 행복하다. 이제 남은 여생 배움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중의 모습으로 본이되게 덕을 섬기며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지금 이 황혼기에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 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이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다짐해본다. 

스노우 튜빙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찌어다 여호와와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시편 33:3-4

글 - Ginger Li

낮은 기온과 간간한 눈발로 우리를 반겨준 겨울 날씨가 시작되면서, 오아시스 사역과 관련된 각 사람들, 즉 아이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부모님들은 스노우 튜빙 여행을 계획하면서 기분이 들뜨기 시작했다.

스노우 튜빙을 하러 가는 날, 우리는 교회 로비에서 아침 일찍 모이기로 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중요한 날을 위한 준비로 많은 사람들이 이리 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떠나기 전, 몇가지 문제에 부딪치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원래는 스노우 튜빙을 하러 리버티 스키장을 갈 예정이었지만, 아쉽게도 그날 리버티 스키장이 문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었고 화이트테일(Whitetail) 스키장으로 가게 되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리버티 스키장이 화이트테일보다 스노우 튜빙을 타기에 더 좋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우리의 기대감은 낮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적지인 펜실베이니아의 화이트테일에 가까워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흥분감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빠르고 안전하게 왔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였다. 각자의 짐들과

As the winter weather began to grace us with low temperatures and the occasional snow fall, each of us involved in the Oasis Ministry, including the children, teachers, volunteers, and parents, felt our spirits lift up as we began to plan our snow tubing trip. When the day arrived, we planned on meeting in the church lobby bright and early. After many of us paced around to get everything ready for the big day we had ahead of us, our hearts began to feel heavy and tired as we encountered a few problems. We had originally planned on driving up to Ski Liberty for our snow tubing trip but unfortunately, it was not open that day. We had no other choice but to change our plans and head up to Whitetail instead and without it being said, our expectations began to lower when the word spread that Ski Liberty had better slopes for snow tubing than Whitetail.


However, as we made our trip up to Whitetail in Pennsylvania, the excitement began to flourish within each of us as we drew closer to our destination. When we arrived, we were extremely grateful to get there both quickly and safely. As we unloaded all of our belongings, and what seemed like an infinite amount of food, each of us let out a sigh of relief because we could finally satisfy our hunger and look forward to an after-





끝없이 보이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내리면서 우리는 마침내 배고픔을 채우고, 오후에 스노우튜브를 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맛있는 김밥, 뜨거운 닭수프와 심지어 약간의 불량식품 등으로 배를 채운 우리는 기운이 백배해져서 눈 속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스노우 튜브를 가지러 가면서, 우리가 비록 겹겹으로 옷을 입고 재킷을 걸치고, 장갑과 모자로 무장을 하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겹겹으로 입은 옷을 벗고 장갑과 모자가 없어도, 여전히 바깥에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좋은 날씨와 좋은 하루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가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많은 사람도 긴 줄도 없었기에, 스노우튜브를 들고 첫 튜빙을 즐기러 곧장 슬로프를 올라갔다. 슬로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너무도 좋은 하루를 준비해주셨음을 알았다. 스노우튜브를 하고, 눈 속에서 놀면서 모든 학생들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선생님들, 봉사자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고, 물론 우리 자신들도 스노우튜브를 하면서 즐겼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주셨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스노우튜브가 한 해의 아름다운 겨울날에 가지는 오아시스 사역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 스노우튜브를 가는 날은 단순히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날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훌륭한 시간이며, 이 날의 추억은 우리가 오아시스 사역의 성장을 위해 계속 일하는 데 힘을 줄 것이다. 

noon of snow tubing down the slopes. After filling our stomachs with some delicious kimbap, hot chicken noodle soup, and even some junk food, it got us energized and ready to get out in the snow.

As we made our walk to get our snow tubes, we realized that even though we were well prepared by wearing many layers of clothing along with our jackets topped off with gloves and hats, it was surprisingly warm outside. It definitely made each of us happy because we were able to loosen up on the layers of clothing, forget about the gloves and hats, and still be able to stay warm outside. No one could deny that we were truly blessed with great weather and a great day ahead of us. As each of us had smiles gleaned across our faces, we grabbed our snow tubes and immediately headed up the slope to make our first run down because it was free of long lines and people. When we made our trek up to the top of the slope, we knew that God had planned a great day for our ministry to get together. All of the students were filled with laughter as they slid down the slopes and played in the snow. The teachers, volunteers, and parents were able to enjoy themselves just from watching all of the kids, but of course, we were all enjoying ourselves from snow tubing as well.

At the end of the day, God exceeded our expectations and gave us more than we asked for. Snow tubing is slowly becoming a tradition for our ministry during this wonderful time of the year. It is becoming more than just a time to have fun because it has become a great time of fellowship and the memories made continue to help us as we grow into a stronger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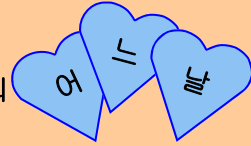
“Sing to Him a new song; play skillfully, and shout for joy. For the word of the Lord is right and true; He is faithful in all He does.” – Psalm 33: 3-4 



교회행사

- ◆ 2월 9일(토) 장요셉, 장헬렌 선교사 선교보고 (MD)
- ◆ 2월 17일(일) 한어회중 / 영어회중 세례식 (MD)
- ◆ 2월 22일(금) - 23일(토)
영어권 / 중고등부 금식수양회 (포토맥 팍 캠프)
- ◆ 2월 25일(월) - 3월 22일(토)
사순절 새벽 기도회 (각 캠퍼스 별로)
- ◆ 2월 29일(금) 7:30 PM (MD 본당)
선교센타 / 비전스쿨 선교 집회 (강사: 강요한 선교사)

헬로쉽의



큰 부자가 없는 헬로쉽 교인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원기 목사는 “요행을 바라며 수고없이 ‘Lottery’를 사서 현금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채정석 집사, “사람들이 이상하네, ‘Lottery’만 안 된다고 했잖아, 요즘에는 ‘픽 3’, ‘픽 넘버 4’도 있고 ‘Power ball’도 있고 한데... ‘Lottery’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Super Lotto, Mega Million...



황인태 집사: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 줄테니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쩌구 저쩌구.. 해서 확!
노준석 형제: (뭐야.. &@#% 한나도 안 무섭잖아)
(실은 금식수양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

*발행인: 김원기 *편집위원: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복진웅, 이창환, 안선희 *인쇄: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